

與, 덩치 커지는 한국당 신경 쓰이네...

탈당파 복귀시 116석...4석 더하면 모든 입법 저지 가능
국민의당까지 멀어지면 법안·예산 처리 더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바른정당 의원 9명의 집단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귀 선언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도 한국당 위주의 보수재편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의석 구조 변화에 따른 원내 영향과 여의도 정치지형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보수재편 자체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한국당 복당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민심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당도부는 7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한국당 복귀 선언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퇴행적 이합집산’이라는 기존 평가를 이어가며, 정계개편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대로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에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투항하는 것은 보수의 통합이 아니라, 촛

불민심에 역행하며 수구세력의 기사화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며 “민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 움직임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놴했다.

민주당의 관망은 한국당의 의석수가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의 복당으로 116석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국회운영에 당장 변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가 줄어드는 데 대해 신경을 쓰는 기류도 상당부분 감지된다. 자칫 바른정당에서 2차 탈당이 있을 경우 한국당이 이른바 개헌 지지선으로 불리는 ‘120석’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이 4석을 추가해 120석에 달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불가능해진다 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만 국회 상임위 단위에서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는 경우다. 한국당에 6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한국당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된다.

민주당이 바른정당의 2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소속으로 있는 이정현 의원의 행보도 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잔류 자강파 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운영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2야당인 국민의당까지 민주당에서 멀어질 경우 법안·예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지금도 “헌 체제로도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다. 연내 개혁 법안을 과연 몇개나 통과시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설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내에도 국민의당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많지만 당장 처한 입장은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우리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함께 합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다수 의석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는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지금 121석의 여당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뻔히 그냥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답답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강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망도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불리 통합을 시도했다가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9명 복당 앞둔 한국당 ‘전운’

친박계 “탄핵·대선패배 사과부터 해야” 견제구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을 앞두고 한국당 내에 전운이 돌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복당하려면 먼저 사과부터 하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등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7일에도 바른정당 탈당 선언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만들어 대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복당하려 한다는 게 친박계의 주장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통합과 의원들이 점령군처럼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쳐서 지금 한국당이 야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탈당 의원들) 무작정 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며 “복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반감을 갖는 의원도 있어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탈당 선언 의원들은 일단 몸을 낮추고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당도 전에 굳이 갈등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원내대표 경선부터 당무감사, 지방선거 공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해 있어 언제든지 갈 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썰렁’해진 바른정당 연석회의

현역 4명만 참석 ‘침통’...탈당 대책 등 논의

9명의 의원이 집단탈당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바른정당의 공식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바른정당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연석회의’를 열어 전날 탈당선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통상 화요일에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지만, 이날은 당사에서 최고위원 일부와 ‘11·13 전당대회’ 후보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탈당 명단에 들어간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권오을 최고위원이 주재했다.

현역 의원 참석자는 유승민·하태경·이혜훈·유이동 등 4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공개회의장에 얼굴을 보였다.

권 최고위원이 “당이 어려울수록 말을 아끼면서 서로 마음을 다잡자”고 호소한 뒤 마이크를 잡은 진수희 최고위원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언론의 관심에서, 국민 시야에서 바른정당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계속 썰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가다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공개회의를 마치고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별도 회의실로 이동해 사무처 직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향후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인한 당 재정 상황과 아울러 당장 직원들의 관심사인 보수 문제에 거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전남지사 출마 의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 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 만나 “최근 몇몇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출마를 권유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며 “솔직히 출마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전남 유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며 “하지만 전남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출마 의사를 보였다.

전남지사 후보로의 강점에 대해 “전남

도 실국장을 6년, 행정부지사 3년, 광양·여수·목포 부시장 4년 등 20년 가까이 전남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고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전남의 현안과 관련 “역동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라며 “차기 전남지사는 임기내 최소한 5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법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바른정당 탈당사태’ 불똥 튄 국민의당

통합·연대 주도 安에 책임론
安 “불편한 사람이 나가야”
이상돈 “심정적으로 당 쪼개져”
동교동계 내일 대책 논의키로

바른정당 분당으로 촉발된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바른정당과 통합 및 정책연대를 주도해 온 안철수 대표에 대해 호남 중진들이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자 독일·이스라엘 방문차 외국에 체류 중인 안 대표가 내부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양측 간 노선투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성열, 주승용, 장병안, 황주홍, 조배숙 의원 등 호남 중진은 7일 오전 여의도 조찬 회동을 하고 최근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식사 후 기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내 길을 갈 테니 나가라’는 것은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날 자신이 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안 대표가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것”이라고 받아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안 대표의 반발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며 이영호(맨 오른쪽)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해 “하는 꼴이 딱 초딩(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는 게 국민적 인식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도 이날 “호남을 들먹이며 ‘나갈 거면 나가라’는 말은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며 “분열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정배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 “기득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칭 ‘보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안 대

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이상돈 의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의 리더십은 상당히 추락했다”며 “이미 심정적으로는 (당이) 쪼개졌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원로들도 오는 9일 낮 정대철 상임고문의 주도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

지 않았다. 안 대표는 귀국 직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돌파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만 제대로 견제될 수 있다”고 안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